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검정색 볼펜을 사용할 것.
-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시나 불필요한 낙서가 있으면 0점 처리함.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근대적 학문 체계는 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구분하면서 전자를 자연과학에, 후자를 사회과학에 전담시키는 분업 구조가 그 특징을 이루었다. 이런 태도는 사실상 근대 초기의 사상가들(데카르트, 칸트 등)이 창안한 ‘정신/물질’, ‘주체/객체’, ‘인간/비인간’, ‘사회/자연’이라는 이원적 존재론에 뿌리를 둔 것이며, 여기에는 강한 인간중심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어 비인간(非人間)들은 그저 수동적인 객체로서 결정론적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는 물질로 간주될 뿐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은 비인간들에 대한 연구를 자연과학에 맡겨 놓은 채 순수한 인간들만의 세계인 ‘사회적인 것’을 상정하고 그 연구에 매달려왔다. 과학 기술이 오랫동안 ‘사회적인 것’에서 배제되어온 이유도 그것들이 자연법칙을 반영하는 가치중립적인 지식이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비인간과 결합하지 않고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세계 속에서 인간의 행위는 인간 자신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비인간들의 힘을 빌리고서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비인간은 그냥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인간만큼이나 복잡성을 띠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능동적인 행위자라는 것이다. 물론 인간과 결합하면서 비인간의 정체성과 이해관계도 변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비인간의 행위와 이해관계는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성을 띤다. 이런 점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모든 결합은 잠정적이고 그래서 그 결합에 언제든지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에 대해 한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근대적 학문 체계는 그러한 결합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데도 아직 대부분의 이공계 또는 인문 사회계 학자들이 이질적 결합으로 구성되는 세계의 현실로 눈을 돌리기보다 각각 ‘자연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것’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학문 체계는 초기 근대에 그 토대가 된 이원적 존재론과 그것의 결과인 ‘자연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것’에 대한 구별적 집착에서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의 이질적 결합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 학문 체계가 오늘날의 세계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학자의 주장에 흥미를 느끼고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근대주의의 이원적 존재론을 극복한 학문 체계는 기존의 학문 체계에 비해 어떤 장점



## 2014학년도 수시 2차 논술 고사

인문계열  
[오후]

이 있을까? 그것은 우선 ‘자연/사회’의 이분법이 초래한 ‘자연과학/사회과학’(또는 ‘이공계/인문사회계’)의 경직된 두 문화를 극복할 가능성을 마련해준다. 나아가 학문이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늘날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핵발전소 사고, 광우병 등은 모두 ‘자연/사회’, ‘비인간/인간’의 이분법으로는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한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특히 이원론에 내재해 있는 인간중심주의는 올바른 처방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탈이원론적인 학문 체계는 비인간 사물의 행위와 이것이 인간의 행위에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 출처 : 김환석, 제목은 출제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생략함. -

[나]

(1) 환경론자들 중에는 생태지향주의자들이 있다. 이들은 인간에게 사용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생물군과 종, 서식처, 생태계 그 자체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유지함으로써 인간과 비인간계의 생존과 복지를 보존, 증진시키는 것이다. 생태지향주의자들은 비인간계(非人間界)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황야나 야생계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대표적인 생태지향주의 운동단체로 미국의 “The Earth First”, 오스트레일리아의 “The Wilderness Society” 등이 있다. 이들은, 비인간계에 대한 폭넓은 인간의 관심이 필요하고, 비인간계의 이익을 인정해야 하며, 인간과 비인간계의 미래 세대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생태지향주의자들은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 이를테면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바위, 동굴, 냇물 등 무생물에도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2) 환경론자들 중에는 자원보존주의자들이 있다. 미국 초기 산림청장이었던 핀콘트(Pinchont)는 자원보존을 위한 운동을 주도했다. 핀콘트는 첫째, 개발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며, 둘째, 자원의 낭비를 막아야 하며, 셋째, 개발은 소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러한 주장은 경제적 생산을 극대화한다는 원칙과 자원관리의 전문화를 꾀한다는 과학적 관리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들은 자원을 재생산이 어려운 자원과 재생산이 가능한 자원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하여 그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며, 비효율적으로 쓰지 말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예컨대 수산자원, 곡식, 목재 등의 경우에는 최대한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자고 주장한다. 이들 자원보존주의자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보존과 개발’ 혹은 ‘개발을 위한 자원보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발을 위한 자원보존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자원은 어디까지나 산업사회의 효용성과 관련될 뿐이지 자원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가치나 존엄성은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 2014학년도 수시 2차 논술 고사

인문계열  
[오후]

(3) 환경론자들 중에는 자연보존주의자들이 있다. 뮈어(Muire)는 개발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미국 대륙의 자연림이나 황야를 파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보존주의자들은 보존된 자연으로 인해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본다. 그런 견해에 따라 와이오밍주 서북부 지역의 200여 만 에이커의 광대한 황야가 1872년에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거기가 유명한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다. 내쉬(Nash)에 의하면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지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있는 그대로’ 보존된 최초의 사례이다. 그런데 언젠가는 인구 문제 해소와 범람하는 공해로 자연보존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한 국립공원은 문명의 광막한 바다에 둘러싸인 인조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보존주의자들이 황야를 보존한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출처 : 이화수, 제목은 출제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생략함. -

[문제 1-1] [가]를 요약하되, 요약문이 한 편의 완결된 글이 되게 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50자(±50)자로 할 것.(25점)

[문제 1-2]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가]의 반론을 바탕으로, [나]의 세 환경론자들의 견해인 (1), (2), (3)의 배치 순서를 바꾸어 그 순서에 따라 세 견해들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단, [가]의 견해와 거리가 가장 먼 것부터 가까운 것의 순서로 배치할 것.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50자(±50)자로 할 것.(25점)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다윈(Darwin)은, 정서가 하등동물과 인간 그리고 유아와 성인 사이에 연속성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서는 진화의 역사 및 개체의 삶에서 과거 한때 유용했던 반응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극도의 공포를 느낄 때에 머리털이 곤두서는 반응이나 극도로 화가 났을 때에 이(이빨)를 드러내는 반응은 인류가 원시 동물이었을 때에는 유용했으나 인류가 진화하면서 이제는 그 유용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또 슬플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반응은 유아기의 울부짖음에서 유래한 것으로, 눈물이 유아기에는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성인기에는 기능적 유용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윈은, 인간의 정서가 원시적 속성을 갖고 있어 종의 과거 및 개인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으며, 완전한 자의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지적하였다.

정서 혹은 감정은 이성과 대비되어 그 역기능적인 면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진화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가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정서가 생존상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정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떨쳐버리고 정서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생리적 생존 관련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정서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요구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돕는다. 정서는 생존에 중요한 행동들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분노는 전투와, 사랑은 접근과, 공포는 도피와 연결되어 해당 행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약 사자와 맞닥뜨려 공포를 느끼지 않으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정서의 이러한 동기적 기능을 강조한 톰킨스(Tomkins)에 따르면, 물에 빠졌을 때 발버둥치는 것은 산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숨을 못 쉬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정서는 이성과 보완적 관계를 구성한다. 인간의 이성은 완전치 못하다. 인간의 지식과 지적 능력은 아주 제한되어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과 부딪치며, 많은 목표들이 서로 갈등관계를 갖고 있다. 정서는 이성을 인도하여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아가고 목표간의 위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서의 이러한 역할은 엡스타인(Epstein)이 주장한 ‘경험적 체계’와 유사하다. 엡스타인은 합리적 체계와 경험적 체계를 구분하고, 합리적 체계가 의식 수준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데 비해 경험적 체계는 전의식 수준에서 정서적이며 자동적인 반응을 관장한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정서는 사회적 삶을 위한 기초구조(infrastructure)를 제공한다. 인간은 협동의 정서(사랑, 호감, 행복 등)와 경쟁의 정서(분노, 공포, 경멸, 혐오 등)를 통하여 타인과 연결되고 교류하고 상호작용한다. 인간관계란 사실상 정서의 교환이다. 자신의 슬픔과 분



## 2014학년도 수시 2차 논술 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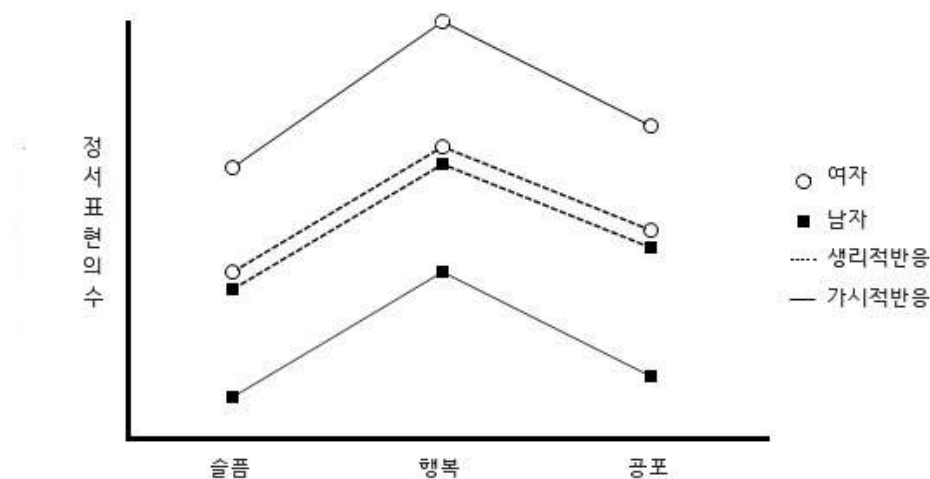
인문계열  
[오후]

노와 애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위로나 사과를 받고 애정을 확인하는 것이 친밀한 인간관계의 본질인 것이다. 정서가 없으면 인간은 모두 모래알일 따름이다. 정서는 인간이라는 모래알들을 서로 끌어당기게도 하고 배척하게도 하는 마술적인 힘이다. 아마도 현대사회에서 정서가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이 사회적 기능일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정서적 단서를 읽어내는 데 여성이 남정보다 더 우수하다. 여성의 비언어적 민감도는 거짓말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우월성을 보인다. 그리고 여성은 남녀 한 쌍이 정말로 연인 사이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사이인지를 구분해내고, 사진 속의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상사인지를 구분해내는 데 있어서도 남정보다 우월하다. 여성의 비언어적 민감성은 여성의 정서표현력이 뛰어난 이유를 설명해준다. 바렛(Barrett)이 남성들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기술하도록 요구하였을 때, 그들은 비교적 단순한 정서만을 기술하였다. 여러분 스스로 이 실험을 해볼 수 있다. 누군가에게 졸업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겠는지 물어보라. 남자들에게는 그저 “기분이 나쁘겠죠.”라는 답변 정도를 들을 가능성이 크며 여자들에게는 “후련하면서도 씁쓸하겠죠. 기쁘면서도 슬플 거예요.”라는 표현을 듣기 쉬울 것이다.

다음 그림은 슬프거나(죽어가는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 행복하거나(익살스러운 코미디), 무서운(높은 빌딩 모서리에 겨우 매달려 있는 남자) 영화 장면을 시청하는 남녀 대학생들을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관찰된 가시적 정서표현의 수와 심장박동수와 같은 생리적 반응치를 통해 측정된 정서표현의 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 2014학년도 수시 2차 논술 고사

인문계열  
[오후]

[다]

성은 생물학적 영향도 받지만 사회적으로도 만들어진다. 남녀간 성차가 발생하는 데에는 문화와 주변 환경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과 남성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문화의 조성력을 볼 수 있다. 문화는 성 역할(gender role), 즉 남성과 여성의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기대를 규정한다. 어떤 문화에서는 남성이 데이트를 신청하고 차를 운전하며 계산서를 집어 들고, 여성은 가정을 꾸미고 아이들을 돌보며 결혼 선물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미국의 경우 직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매일 한 시간 이상 일을 더 많이 하며, 가사와 자녀 양육에는 매일 한 시간 가량 적게 관여한다. 부모 중 자녀가 아플 때 집에 남아있거나 간호해줄 사람을 구하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일의 90%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호주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집안일에 54%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녀를 돌보는 데에는 71%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

[문제 2-1] 남녀가 보인 생리적 반응에 차이가 없다는 [나] 그림의 결과를 [가]를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단, [가]에 제시된 정서의 유용성을 모두 반영할 것.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50(±50)자로 할 것.(25점)

[문제 2-2] [나]의 그림을 보고 남녀 각각이 보이는, 생리적 반응과 가시적 반응(정서 표현)의 차이를 [다]의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50(±50)자로 할 것.(25점)



# 2014학년도 수시 2차 논술 고사

## 모범답안

인문계열  
[오후]

[문제 1-1] [가]를 요약하되, 요약문이 한 편의 완결된 글이 되게 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50자(±50)자로 할 것.(25점)

- 제시문 출처 : 김환석, 과학 기술의 발전과 우리의 학문 체계 -

근대적 학문 체계는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구분하여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전담시키는 분업 구조를 지닌다. 이런 태도는 이원적 존재론에 뿌리를 둔 것으로 여기에는 인간중심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비인간과 결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혹은 세계 속에서 인간의 행위는 인간 자신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비인간들의 힘을 빌리고서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따라서 학문 체계는 이원적 존재론과 그 결과인 ‘자연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것’에 대한 구별적 집착에서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의 이질적 결합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러한 탈이원론적인 학문 체계는 ‘자연과학/사회과학’으로 양분된 두 문화를 극복할 가능성을 마련해주고, 인간중심주에서 벗어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문제 1-2]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가]의 반론을 바탕으로, [나]의 세 환경론자들의 견해인 (1), (2), (3)의 배치 순서를 바꾸어 그 순서에 따라 세 견해들의 특징을 기술 하시오. 단, [가]의 견해와 거리가 가장 먼 것부터 가까운 것의 순서로 배치할 것.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50자(±50)자로 할 것.(25점)

- 제시문 출처 : 이화수, 생태사회과학: 쟁점과 접근 -

([가]의 견해와 거리가 가장 먼 것에서부터 가까운 것의 순서로 배치하면 (2), (3), (1)이다.) (2)의 자원보존주의자는 개발을 위해서 자원을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과 자원(환경)을 이원화하여 자원(환경)을 인간을 위해 개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인간 중심주의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3)의 자연보존주의자는 앞의 자원보존주의자와는 달리 자연(환경)의 가치를 인정하여 자연주의와 인간중심주의의 조화를 꾀한다. 하지만 인간의 이익을 전제로 자연(환경)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어서 인간중심주의에서 온전히 탈피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1)의 생태지향주의자는 인간중심주의에서 온전히 탈피하여 환경(생태계)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2014학년도 수시 2차 논술 고사

## 모범답안

인문계열  
[오후]

[문제 2-1] 남녀가 보인 생리적 반응에 차이가 없다는 [나] 그림의 결과를 [가]를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단, [가]에 제시된 정서의 유용성을 모두 반영할 것.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50(±50)자로 할 것.(25점)

정서는 인류에게 있어 다음과 같은 진화적 유용성이 있다. 먼저 정서는 전투, 접근, 도피와 같은 생존에 중요한 행동들과 연결되어 있어 인간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해준다. 또한 정서는 제한적인 이성적 판단을 보완하여 목표의 우선순위를 명료하게 하도록 도와준다. 이뿐 아니라 정서는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타인과의 교류 및 상호작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정서는 남녀 모두에게 생존상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모두 슬픔, 행복, 공포와 같은 생리적 정서 반응에 있어서 차이가 거의 없다는 [나]의 결과는, 정서가 유전적 흔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문제 2-2] [나]의 그림을 보고 남녀 각각이 보이는, 생리적 반응과 가시적 반응(정서표현)의 차이를 [다]의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50(±50)자로 할 것.(25점)

[나]의 그림에서 생리적 반응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가시적 반응의 경우에 여자는 생리적 반응보다 더 많은 가시적 정서표현 반응을 보였고, 남자는 생리적 반응보다 더 적은 가시적 정서표현 반응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성 역할과 사회화의 관련성을 논한 [다]의 입장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정서적 반응이 외부로 잘 표현하도록 허용되고 장려되는 문화에서는 동일한 생리적 반응에 대한 정서표현은 더 풍부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문화에서는 남성의 정서반응을 남자답지 못하다고 억압하기 쉬운데, 남성은 동일한 생리적 반응에 대한 가시적 정서반응은 더 적을 것이다. 이처럼 성역할의 사회화와 성역할에 대한 문화적 기대에 따라 남녀 각각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정서반응과 생리적 반응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